

'우후죽순' 지역주택조합 사업 개선

광주시, 올해 7월23일부터 추진 조건 구체화 광고·모집절차 등도 개선...피해 줄어든 듯

광주시가 지역주택조합사업을 개선한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또는 전 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 20인 이상이 조합을 설립해 추진하는 주택사업이다. 사업절차는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착공, 사용검사, 조합해산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는 토지사용권 확보 등에 관계없이 조합원 모집신고가 가능하고,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사용권

원의 80%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다. 조합원 모집 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법적 제도가 없다.
시는 주택법 개정(2020년1월23일)에 따라 올해 7월23일부터 지역주택조합사업을 개선한다.
주요 개선사항은 조합원모집신고 시 토지사용권 50% 이상 확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사용권 80%이상과 소유권 15% 이상 확보 등이다. 사업추진 조건이 구체화되면서 조합원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

로 기대된다.
조합원 모집 광고 및 절차도 개선된다.
광고 시 조합원 모집을 알리는 문구, 토지확보 현황, 자격기준 등을 명시해야 한다. 계약 시 조합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개요, 자격기준, 분담금, 토지확보 등 중요사항을 설명 받은 후 서면확인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금보관업무를 신임업자에 대행하고 조합추진실적을 조합원에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해 조합운영의 투명성도 높아질 예정이다.
모집신고 후 2년 이내 설립인가를, 설립인가 후 3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통해 사업종결처리를 할

수 있게 돼 사업지연과 중단으로 인한 조합원의 부담감이 줄어들게 됐다.
시는 이와는 별개로 지난해 7월부터 용도지역 변경(1종→2종일반주거지역)이 수반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도시계획절차(지구단위계획)를 이행한 후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도록 해 선의의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김중호 시 건축주택과장은 "주택법 개정 및 조합 사업절차 개선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 조합원의 피해가 줄어들게 됐다"며 "앞으로도 행정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동구 "희망 잡클래스로 취업 성공했어요"

광주 동구가 희망 잡클래스(Job Class) 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동구는 31일 '2019 희망 잡클래스' 사업 참여자 중 취업에 성공한 9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은 아르바이트나 단기일자리가 아닌 농업, 공공서, 세무사무소, 연구원, 일반기업 등 평생일자리 취업이라는 알찬 결실을 맺어 눈길을 끌었다.
광주시 공모사업인 '희망 잡클래스 사업'은 돌봄이웃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모두 50명이 참여했다.

서구,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모

광주 서구가 오는 2월 11일까지 평생교육 기관·단체 및 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2020년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열린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장애인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기회 마련과 평생 학습 문화를 조성키 위해 추진된다.
공모를 통해 서구는 평생교육 인문학 활성화 사업, 장애인대상 프로그램 지원 사업, 다문화여성 외국어강사 양성사업,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등 4개 분야에 총 7천 2백만원의 지원할 예정이다.

남구, 구립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 모집

광주 남구는 관내 구립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강사들이 공공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구립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를 공개 모집한다.
30일 남구에 따르면 올 한해 문화정보 도서관을 비롯해 푸른길 도서관, 청소년 도서관 등 구립 도서관 3곳에서 총 29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도서관별 운영 강좌 현황을 보면 문화정보 도서관의 경우 8개 강좌, 푸른길 도서관 15개 강좌, 청소년 도서관 6개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구립 도서관 3곳에서 진행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강좌별 프로그램 운영 강사를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통합공모 추진

광주 북구가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 나선다.
북구는 "오는 3월 5일까지 주민 스스로 마을의 비전을 제시하고 현안을 직접 해결함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기 위한 '2020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통합공모'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모분야는 △마을모임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마래계획 만들기 △마을의제 실행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5개 사업이고 총 3억 3천여만 원을 지원한다.

광산구, 취약계층 신종코로나 예방 홍보 나서

광주 광산구가 30일 감염병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노인 등의 감염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벌였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이날 오전 송정동 행복나루노인복지관을 찾아 예방수칙이 담긴 홍보물을 전달하고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등을 당부했다.
함께 한 공직자들과 질병예방 포스터도 붙였다.
김 구청장은 이에 앞서 구청에서 열린 '2020년 아이 돌보미 직무교육'에 참가한 아동 돌봄 전문가들에게도 돌봄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임형택 기자

중 우한서 전남으로 11명 입국...전남도 "예방 총력"

김영록 지사, 신종 코로나 선별진료소 점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0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선별진료소인 목포한국병원을 찾아 오탁순원장 안내로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전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국내 발생과 중국 우한에서 전남으로 11명이 입국함에 따라 감염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감염증 대응 유입에 대비해 시군 보건소와 의료기관 55개소에 선별진료소를 지정해 운영

중이며, 호흡기 증상, 폐렴 등이 있는 환자 내원 시 중국 여행력을 의료기관에 확인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목포 한국병원을 찾아 선별진료소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과 확산 차단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감염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과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들도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키고 중국 방문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병·의원 방문 전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시군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성민 기자

장기공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3월부터 대폭 완화된다

광주시는 3월부터 노후된 영구임대주택의 공실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내 소득기준을 기존 월평균소득 50% 이하(3인 가구 270만원)에

서 대폭 완화된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영구임대주택 공공가율이 5%이상,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공공가율이 5%이상,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다.
광주시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은

1만5370호(도시공사 4700호, LH공사 1만670호)로 이중 574호(2019년말 기준)가 현재 공실로 남아있다.
이번 개정으로 광주에서는 하남주공, 각화주공, 우산빛여울채 등 공실이 5% 이상인 영구임대주택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노·사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남에는 노사민정 세력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끼리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무로 지원해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에 대해서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 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노사갈등조정지원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해와님께서 재인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평균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연도	고소득층	중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평균
2016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111,111원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